



만일에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행하라. 단호하게 그것을 행하라. 게으름 유행하는 수많은 욕심을 부릴때.
 <法句經 지옥품 313절>

東大新聞

발행처	경북대학교	인간문화대학	신문	민중	별첨
발행일	월	일	일	수	인
발행시간	오전	8시	30분	정	간
발행량	100	000	부	부	부
발행처	경북대학교	신문	민중	별첨	
발행처	경북대학교	신문	민중	별첨	

제 1121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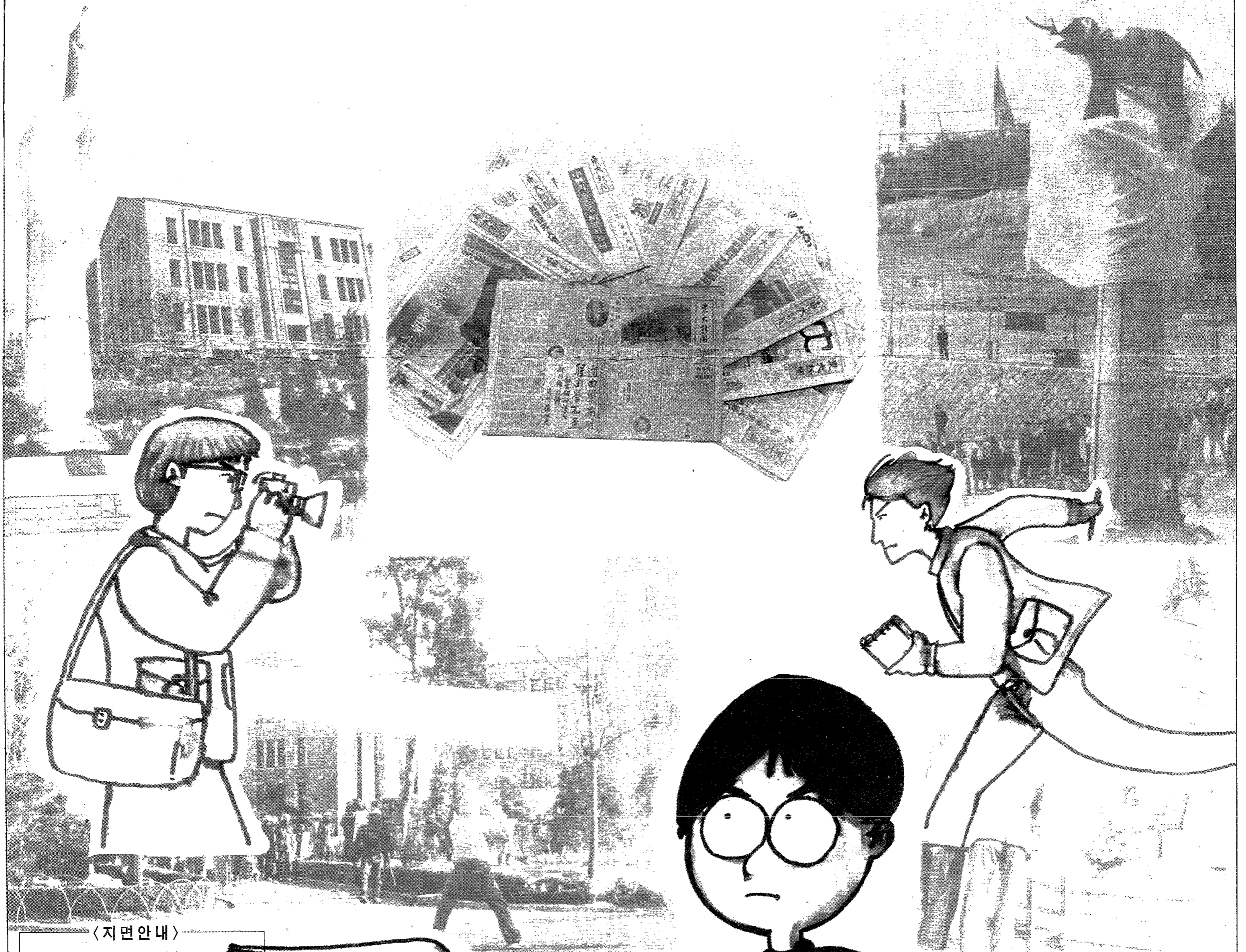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규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4월 14일 (수요일)

[1]

동대신문 43년은 동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간들입니다



<지면안내>

- 2면 : 전교조 합법화 공방
- 3면 : 동국중흥한마당 개최 발표
- 4면 : 윤금이씨 사진 개요와 전망
- 5면 : 총대위원회 위상정립에 관하여
- 6면 : 동대신문 독자에게 듣는다
- 7면 : 대학신문의 변화와 과제
- 12면 : 영화평 '하위즈 엔드'

사설

학과평가인정제와 교육투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 실시했던 학과평가인정제결과가 발표되면서 각 대학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된 이번 학과평가인정제의 결과에 대해 각 사립대학들마다 크게는 학교발전에 대한 자구책 논의와 더불어 평가제도에 대한 객관성 문제 제기가 무성하다.

이는 이번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컸었던 것에 기인하며 첨단과학분야, 즉 시설과 기자재확충 등 재원확보가 급선무인 분야에 한해 실시된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 분야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립대는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과학분야의 시설이 어느 수준에 끌어 올려지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총체적 문제가 대학 재정확보에 있고 이를 뒷받침해줄 재원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번 평가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국립대인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의 경북대, 전북대 등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와 해당과목에서 모두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한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릴 수는 없다. 전국대, 경희대 등은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두분야에서 모두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교는 물리학과에서 6학점의 평가 기준중 3개과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총점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을뿐 전자공학과는 평가기준 어느항목에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이에 본교와 같은 처지의 몇몇 대학들도 교육환경 열악 판정에 대해 사학재단의 어쩔수 없는 한계라고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쩔수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낙후된 실험실습 기자재에서 학문의 발전과 학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평가기준 모태학에서는 특별예산을 책정해 기금들을 세우고 실험실습기자재를 들여다 놓는 등의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전해진다. 과정이야 어쨌든 평가를 위한 투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존속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덧붙일 수 있듯이 이후 국가 재정지원이나 산학협동 측면의 혜택을 받을 때도 이러한 대외적 기준이 될 학과평가인정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또한 학과평가인정제 평가결과발표이후 재정적·행정적·인사적 문제를 처리하고서라도 첨단과학분야의 발전만 모색은 모든 나라, 모든 대학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원인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과평가인정제도의 대외 평가 기준의 필요성은 첨단과학분야에 나태한 우리나라 대학연구에 계속적인 체질적 개선이 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를 감안한다면 본교도 이번 평가에 대한 냉철한 자제조사와 재단과 학교당국의 지원에 대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화학과에 대한 학과평가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앞서 평가받은 전자공학과등에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한 좀 더 구체적인 자체 평가기준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이공계발전에 대한 발전안 마련을 위한 논의 구조를 꾸려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東國漫評

김상남



우리 교육계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육재정, 학부모의 막대한 교육비 부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육시설과 환경,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 입시부정문제, 사립학교 재단의 전횡과 비리 등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든 정도이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이 눈앞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전교조 문제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계가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일 때 교육문제 해결의 길은 쉽게 열릴 수 있다. 교육계의 대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는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계의 갈등을 끊임없이 증폭시켜 왔다. 위에 열거한 교육계의 온갖 문제점들을 현안으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던 전교조 운동은 정권교보에 한해 현안이 되어 있던 군사정권과 극히 보수적인 교육관료들의 강력한 저지에 봉착하게 되었고 양자간의 정면대결은 날이 갈수록 첨예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후 관련 교사의 파면 및 직위해제 등의 징계와 서명운동 및 전수위 활동 등의 맞대응이라는 악순환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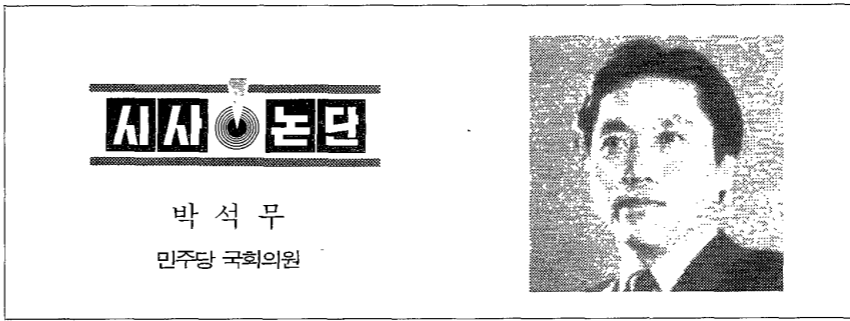
그런데 전교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고 자연히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미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된지 4년이 되어가지만, 전교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제는 전교조 문제가 해결될 시점이 되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전직으로 알고 있는 교단에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래야 전교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회의 남북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전교조 문제는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 다행히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을 국정운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전교조 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대표와 공식적인 대화를 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이른바 '불법단체'로서, 국가기관의 대표적인 교육부장관이 불법단체의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다.

나완강한기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전교조 문제를 기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교조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행정부안에서도 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견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부에서도 교육문화 수석의 견해가 다르고 비서실장

다. 이 점은 교육부의 국회보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 상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교육부가 현행법으로도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와의 첫 번째 공식 대화에서도 그러한 견해를 내보인 바 있다. 이 경우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한하여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계파면된 교사나 최근에 해직된 교사는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별복직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 내의 개혁적인 인사층에서는 제외된다. 김영삼 정권내의 개혁적인 인사층에서는 전교조가 변신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전직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간혹 내보이기도 한다.

즉, 전수단체의 형태로 한국교총의 산하단체에 가입하거나 최소한 상급단체의 성격으로 갖기만 한다면 전직복직도 고려해볼만한 자세이다.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 문제의 해결전망에 대해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제는 나의 소견을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우선 전교조 문제만 나오면



시사 논단

박석무

민주당 국회의원

실질적 교육개혁 위해 완전복직돼야

전교조 합법화 공방

그러나 거부반응도 만만치 않다. 일선학교의 상당수 학교장들, 한국교총 등 교육현장의 기득권 세력은 물론이고 교육관료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아직까지도 전교조에 대한 거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교장단 대표들은 지금도 전교조의 원상 복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하여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사석에서 "교육부 관료들이 문제다. 그들은 아직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교육부 관료들이 일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견해가 다르고 그 산하의 주무 국장의 견해가 다르다. 여당인 민자당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위의장의 말이 다르고 정책조정실장의 말이 다르다.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교조 문제를 두가지로 나누어 별도로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 하나는 전교조라는 단체의 합법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교조와 관련하여 해직된 교사의 복직 문제가 우선적인 해결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개인적으로 무척 당혹스럽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나 자신이 교사출신이고 해직의 경험도 배차해나 있다. 교육계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해직교사의 사정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특히 해직교사의 고통은 더욱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 그래서 해직교사들의 복직이라도 우선 성사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오는 임시국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및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민화합과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흔하디 흔하디 신선국건설을 위해서라도 전교조문제는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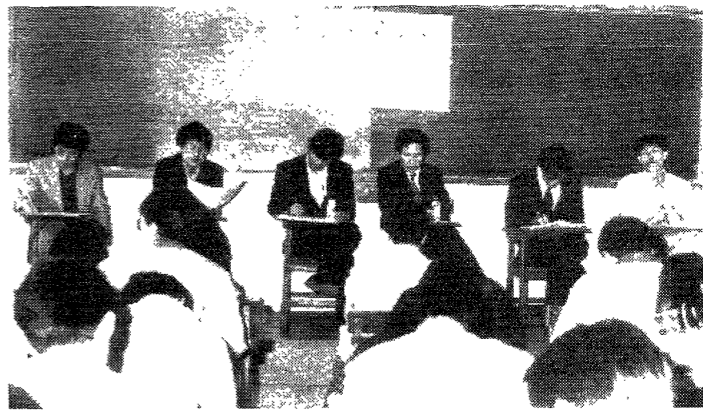
지/상/중/계 전원협 남부지구 공동학술제

“변화된 정치지형과 연구자 운동의 임무”

시대가 변하면 이에 따른 모든 제도가 바뀌어 버린다. 대중을 움직이고 선동시킬 정치적 역량과 운동도 한 새로운 경향이 들어섬에 따라 분명히 변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변화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할 운동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학술제가 열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남부지구주최로 열리는 이번 '93년 전원협

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원인을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민족민주적인 과제의 미해결성으로 풀고 있다.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대중사업만을 강조할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대중운동이 안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점과 정치전선구

있는 시기이다"라며 대중적운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변화된 정치지형과 학술연구자의 과제"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에 나선 성공회 신학대 조희연(사회학)교수는 서두에서 "김영삼정권이라는 새로운



◇ 지난 13일 서울대에서 열렸던 심포지움 모습

단일화된 운동세력 활성화를

협 남부지구 공동학술제는 13일 있었던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기획강좌까지 열릴 계획이다. 13일 서울대에서 치루어졌던 제1부 심포지움 '변화된 정치지형과 연구자 운동의 임무'에서 첫번째로 발표에 나선 김근태(국민회의 상임위원)씨는 "대중을 움직여야만 연합운동의 현실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운동자체에 대한 위기를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표현이 늘어 나고 있다"고 서문을 밝혔다.

발표자는 김영삼정권을 본질적으로 여전히 외세의 규정이 관통하고 있는 과도적 권위주의 지배체제라는 점에서 과거정권의 성격과 결코 다르

된 현정권 안에서 자체 극복해 단일한 정치조직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근태는 밝히고 있다.

정치조직의 구성에 대해 성격, 역할과 임무, 조직화의 원칙, 회원자격, 지도력 구성, 조직운영 원칙의 기준을 들면서 발표자는 '92년 총선과 대선이후 모든 운동력이 내부정비와 자체강화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나 새로이 들어선 김영삼정권에 모든 대중을 떠날기려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때로는 운동적 조정 나이가 운동적 타협도 모색 될 수 있을 뿐더러 보다 높은 전진을 위해 심도 높은 교뇌와 논의가 요구되어지고

정치적 구도앞에서 있는 현 시점을 올바르게 이해해 학술연구 및 활동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며 변화된 시기의 대안방안을 밝혔다.

조희연교수의 발표에서는 크게 신정권의 성격 규정, 신정권하에서의 한국사회 및 진보운동의 변화와 전망,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학술운동의 과제 등 세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발표내용중 관심을 끌었던 것은 김영삼의 평가가 본래적 의미의 시민운동이 아닌 기득권세력의 변형된 정치운동으로 내내에 있다. 향후 시민운동에 대하여 "시민운동

각 영역이 독자적인 분립조직으로만 들어지면 종합적인 시민운동으로서의 입지는 협소해질 것"이라며 "본래적인 시민운동의 모습을 찾아 과감하게 우리들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 영역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향후 올바른 시민운동 모습을 밝히고 있다.

이후 발언된 토론에서 조희연(한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씨는 두가지 발표내용에 대한 몇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제시했다. 두 발표자가 밝힌 김영삼정권성격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 김철수(사회당추진위 대표)씨는 "한국 현실에 맞는 운동방식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운동방식으로는 더욱 어려울것이다"며 보수

와 진보의 기준선, 자본주의내에서의 변화추구와 근본적인 변화추구를 놓고 현 정권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소견을 제시했다.

김동준(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씨는 "통일후 한국사회건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라고 밝히며 이것과 함께 양면의 변화,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제 심포지움에서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그리 깊은 내용은 오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 민중운동역량 상승을 위한 크나큰 과제로 떠올랐다.

<김관식 기자>

성공미팅 5대 전략!



1. 시장조사와 다켓분석을 먼저하라.
2. 알뜰해 자신이 없으면 어두운 곳이 좋다.
3. 무개는 잡되 매너는 지켜라.
4. 아왕이며 맥주로, 아왕이면 크라운으로 -
5. 애프터는 집에 바래다 줄때 신청하라.

미팅도 알고보면 지원한 버리싸움, 주도면밀한 자만이 훌륭한 파트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크게, 건배는 높이 - 상·하의 삶은 만남속에 크라운맥주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크라운맥주

◇윤금이씨 살인사건 재판현황과 4차공판 진상

오히려 유리한 무기징역선고

지금의 한·미행정 협정체제는 또다른 윤금이를 불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분주했던 지난 92년10월28일 오후3시30분경 부산동 431-50번지 김성출(68) 씨집에 새들어 사는 미군클럽 여중원 윤금이씨가 알몸으로 숨겨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후 경찰발표에 의해 범행 혐의자는 주한미군인 케네스마를 이범으로 지목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결과를 비롯한 각종 조사를 통해 마를 이범이 살해범인으로 밝혀졌다.

일차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검찰측이 범인을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신병을 미군측에 맡겨 놓은 채 구금인도요청을 이에 포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금인도요청 포기의 이유는 구치소 부대시설의 부재(양면기, 냉장고)와 한·미관계의 외교마찰이라는 것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한·미 행정협정 제22조 5항 범죄 혐의자 수사 및 구속과 제22조 3항 1차적 행사권 포기의 불명등에서 기인한다.

케네스마를이 3차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보여준 자세는 일말의 죄의식을 가지고 참회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술변복, 범행사실부인, 위증반복,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불성실과 진술회피로 일관했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정부는 외교관계를 어떻게 맺었길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는가?

그동안 한국정부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심문과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애초 한국정부가 범인의 구속을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본고에서 있었던 케네스 마를 이범에 대한 규탄서명 모습

재판을 진행한 것에서 드러난다. 사건초기단계에서 용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심문수사와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검찰의 자세는 남들이 가지 않는다.

중속구형, 조기종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부터 검찰은 이사건을 성실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런 검찰의 자세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3차공판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원 권일훈씨는 "사체부검 결과 범인이 윤씨를 죽이기전에 윤씨의 몸에 흉상흔을 찔고 세체를 뿌리는 등 단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함에도 검찰은 구형은 고에서 "피살자의 사체를 살포하면 범행의 잔인함을 볼 수 있고 군인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구형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혹한 살인행위와 증거인멸을 위해 콜라병에 수건을 감싼 것이라든지, 방바닥에 세제를 뿌린 것 등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용의주도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인데도 검찰의 구형논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판부와 검찰이 짜고 3차공판이 구형공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기자의 참관인이 빠져나가고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기속적으로 검찰은 구형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점이다.

지난해 10월28일 윤금이씨를 살해한 살인범 케네스 마를 처벌투쟁 또한 은국인의 분노로 민족의 자존을 걸고 서명투쟁과 공판투쟁을 펼쳐가며 벌여내고 있는 이시점에서 기자의 미군범죄에 대한 각성을 새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14일 4차공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간 검찰과 재판부의 모습이라면 무기징역에서 15~20년 정도로 구형이 확정될 예상이

다. 우리는 이러한 중속구형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된다. 범인의 명백한 자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이 사건을 조기종결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용악한 미군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도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수사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한·미행정 협정이라든 마를이 어떠한 구형을 받더라도 미국이 신병인도를 하면 즉각 '호의적 고려'를 하여 미국에서도 복역할 수 있다.

(제22조 7항 죄의자 인권보장)의 불명등성으로 인해 한국 구치소 시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측의 구치소에 이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이번 사건의 4차 공판결과가 무기징역으로 선고된다면 현 한·미행정 협정에 따라 살인범 마를 이범은 평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국에서의 미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더이상 파장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사건이 국민들의 의식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케네스마를은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가서 활보하게 될 것이며 이범의 또다른 윤금이씨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참혹한 살인사건은 신세가 중요하다. 10만건의 미군범죄중 0.7%밖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현실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힘과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주한 미군의 범죄를 근절시키고 민족의 자존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박 혁

<총학생회 투쟁국장>



강동훈<불교방송 보도부기자>

◆ 웨블사건 진상밝힌 불교방송 강동훈 기자를 만나

“불교계 내의 단결된 모습 아쉬워”

본교 대응책 너무 늦은감

육군 제17사단 진차대대의 범당계쇄 및 웨블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상화형식으로서까지 비화된 이번 사건을 취재해 보도한 불교방송 보도부 강동훈 기자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다.

—웨블사건을 취재하게된 동기.
=지난달 29일 전화회보가 들어왔다.

—본격적인 취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지난달 30일 제보자와 2.3차 통화취재로 어느정도 윤곽을 잡았고 다음날인 3일 7사단으로 확인차 취재를 갔다.

—제보자란 어떤식의 제보였나.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신병을 썼다. 군수단에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제보자와의 연락은.
=3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전화통화를 했다.

—법정적인 취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지난달 30일 제보자와 2.3차 통화취재로 어느정도 윤곽을 잡았고 다음날인 3일 7사단으로 확인차 취재를 갔다.

—이과에서 군관계자를 통해 확인을 하고, 보도하게 됐다.
=우선 우리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 불자를 스스로 불교인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해야 하며, 불교계 지도부도 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포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첫을 보도한 날짜와 형식은.
=8시 뉴스광장에 한창취재 형식으로 보도 됐다.

—구체적인 보도내용은.
=법당청거후 참고 사용, 불상화형식, 연등과 풍경 철거, 불자장병 단입력 강제파견 등이었다.

—보도후 취재자들의 반응은.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다. 보도가 되자마자 확인 전화가 계속됐다.

—보도후 군의 반응은.
=17사단내에 자체수사반을 편성하는등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또한 국방부는 해명서를 발표하고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불상화형식 한가지만 빼고 모두 인정했다.

—불상화형식 보도는 어떻게 된것인가.
=첫날 불태워 버렸다고 한 불상이 다음날 나타났다.

—불상의 진품여부가 문제시 되는데.
=조병석 당시 대대장의 진술을 태워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예 버렸다는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불상봉안당시 봉안에 넣었던 시주자 명단이 있는 금강경이 없어 진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

—사건보도이후 7사단의 대응은.
=지난 2일 참고를 법당으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현판을 태워버려 준비가 안돼있었고, 불상도 진품여부를 알 수 없었다.

—취재시 힘들었던 점은.
=군부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매우 힘들었다. 일당 제보자의 보호와 연락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취재방법도 진점취재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위해 군당국이 해야할 일이라면.
=제도적으로 각종교회의 군중 장교수를 신자수에 비례해 배치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급자가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교계의 대책이라면.
=우선 우리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 불자를 스스로 불교인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해야 하며, 불교계 지도부도 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포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불교계 내부의 단결된 모습도 중요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지난3일 부터 시작된 본교의 대응에 대해.

=그간 동국대라는 중단의 가장 큰 부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쉬웠다.

—비록 학생회 중심이지만 어느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불교계의 엘리트층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고 좀더 관심을 갖고 군포교 부분 연구에 힘써 일선 장병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석중 기자>

알아보시지?! '텔레마케팅'

각종 통신기기를 이용한 상품 판매방식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텔레마케팅이라는 상품판매방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텔레마케팅(T.M. Telemarketing)이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좁은 의미의 전화판매(Phone Sale)가 있고, 넓은 의미로는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등의 통신기를 통해 고객발신처리, 고객서비스, 신상품 소개, 판매추진, 시장조사, 광고등 일련의 마케팅활동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신마케팅기법이 있다.

확산된 상태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소비자와의 접촉 방식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일대일의 직접대화를 들 수 있다. 일례로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유권자들에 대한 호별방문이 금지되자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상품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는 엘지신용카드(주)를 들 수 있다. 작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시작한 통신판매제도는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엘지신용카드(주)에서는 회원중에 결혼기념일이 있으면 7~10일전 미리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준비에 대한 여부를 묻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엘지신용카드(주) 통신판매와 최정욱씨는 "주로 주문번호 있는 상품으로는 보석, 속옷, 꽃, 케이크 등이며 통화하는데 어려운 점을 듣다면 회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무척 애를 먹는 다"며 통신판매제도의 어려움을 밝힌다.

이렇듯,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고 있는 텔레마케팅은 결코 보기엔 참신한 상품판매방식이지만 과당경쟁, 과당요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뿐더러 다단계판매방식과 같은 심각한 폐해도 속출시킬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본고 황창규(경영학)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동학로

지난 6일부터 은행골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체육대회가 대운동장과 문무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문대, 상경대와 같이 학과가 많은 단과대학은 이틀을, 학과가 적은 단대는 하루를 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는 단대는 수업을 포기하다시피하며 체육대회에 임하기 일쑤다. 게다가 교양수업은 인원수 많은 단과 체육대회를 빠진 경우 단속수업을 하는 등 수업결손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강후 수강정정기간'이라고 2주나 놓고 4월초부터는 체육대회다 MT다 하며 놓고, 4월말부터는 시험기간인데 도대체 필요 시험을 치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1학년 전공수업을 맡고있는 어느 교수의 말씀이다. 이러한 불만은 소위 '도서관'이라 불리는 학생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선별

상아탑의 모순

집착한 나머지 운동 잘하는 몇몇 학우들 만으로 명단을 작성해, 운동을 못해 소외받고 정신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것 같아 학과 일이라면 기피하게 됩니다." 도서관 4층 1열람실 창가에 서서 자기과의 야구경기를 지켜보다가 쓸쓸히 자기자리로 돌아가던 한 학우의 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방 3대 대학이라는 소릴 무척 듣기 싫어하고 그런 소릴 주위에서 누가 한다면 팔짝 뛰며 부정한다. 그러나 우리 편편 우리 자신이 자부하는 최고 학부의 학생단체 생활했는지, 캠퍼스의 낭만과 젊음의 발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인으로 가는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자. 체육대회의 친목도모와 화합의 목적도 좋지만 상아탑의 또다른 목적인 진리탐구를 우리는 너무 외면하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전원철 기자>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력키금성의 新制度

후계자 양성

“저보다 더 나은 후임자를 키우기 위해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 력키 부장 이승태

계 동료들은 가끔 누구 자리가 더 위태로운가 농담하며 부하직원 자랑을 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후계자 양성제도 때문이죠. 신입사원 시절 꿈은 물론이거니와 호기있게 이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던 후배직원들도 십여년 지나면 빛나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 회사 생활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위사람이 바뀔 때마다 회사 전체에 한바탕 큰바람을 일으키는 식이었던 기존의 인사관리 풍토 속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날만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또한, 회사마다 있기 마련인 일정한 경영방침과 고유의 기업문화와 일관성 있게 계승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후계자 양성제도를 두어, 조직 내부에서 자란 사람들로 바톤을 이어 가게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급하게 필요할 때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라 결 알기에 평소엔 장기적 관점에서 각계각층 후계자를 적극 양성하기 위한 기조. 저보다 나은 후임자를 키우기 위해 제가 부하직원들의 직관과 소질을 유심히 파악하고, 그의 성장을 위해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은 후, 그 후 부위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후배사원들의 눈빛이 신참사원의 초롱초롱

함을 찾았다고 할까요? 세자리를 호시탐탐 엿보는 그들의 만만찮은 눈빛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굳건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력키금성은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력키금성을 키웁니다. 인건중의 경영 력키금성

독자와 기자의 호흡일치를 향해

변하고 있는 대학신문

대학신문의 발전사는 곧 대학의 발전사를 의미한다. 대학사회의 거울이자 사회의 양심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왔던 대학신문은 90년대 들어 급격한 편집방향의 변화를 보인다.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는 변화하는 대학신문의 모습을 가리켜 '약화된 학생운동의 세를 반영한다'거나 '운동권만을 대변했던 오류가 초래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90년 이후 대학신문의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올해 다양한 기획, 편집의 변화 등으로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외화되고 있다.

대학신문 변화원인은 무엇인가. 학생운동의 약화때문인가. 아니면 정보 전달매체의 양적 증가때문인가.

이 글은 그동안 대학신문내에서 전개됐던 매체혁신운동과 최근 대학신문의 변화모습을 살펴본 뒤 대학신문의 변화는 주 독자인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며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한 편집방향이나 좌·우 편향적인 변화모습을 신문의 주인인 독자와 함께 진단하고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편집자>

"타도하자!" 자본가 세상, 쟁취하자! 노동쟁쟁!"

이것은 88년 한 대학신문의 1면 기획광고 제목이다. 격변의 6월 항쟁을 경험한 민주적인 단체와 매체들은 대부분 87년 당시의 고양된 분위기를 되새기며 마음껏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열중했다. 대학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더 앞서 나갔는지 모른다. 정권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학교당국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조치까지 보기 어려웠던 탓에 대학신문기자들은 금기시되었던 많은 부분까지 소재로 삼아 지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바람도 잠시, 대학신문 기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부각하면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기 시작했다. 89년 서강대에서 있었던 '자유언론 실천 대학신문 기자 연합' (대학신문 기자들의 연합조직으로 전대기련의 전신) 정기 총회는 3백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으나 다루는 내용은 다소 의기소침한 부분이었다.

문기자연합 대표자회의(전국 각 대학신문사 편집장의 모임)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다.

매체혁신운동 전개

매체혁신은 주체혁신, 지면혁신, 조직혁신 등 3대 혁신을 포괄할 것이다. 주체혁신은 서구 자유주의적 언



◇ 89년 이후 독자들의 정서변화와 인쇄매체의 발달로 인한 사회환경변화로 대학신문의 '새로운 길찾기'는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각 대학신문의 지면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우편향을 낳기도 한다.

89년 이후 편집방향 변화 시작 기자와 함께 독자도 혁신돼야

론관을 극복하며 민주주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평가론적인 언론이 아닌 대중선전활동가로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지면혁신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라는 불분명한 명제에서 대중과 괴리되었던 편집노선을 지양하고, 대중적인 언론의 지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맞추었다. 조직혁신은 대학언론사의 봉건주의적인 관료성과 폐쇄성을 타파하고 독자를 신문의 주인체로 세워내는 대중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다.

3대 혁신의 과제를 골자하라는 매체혁신운동은 일회적인 혁신의 과제라기 보다는 상시적인 혁신의 과제였으며 이는 전대기련차원으로 수습학교 개교, 선전학교, 편집학교 등이 열리는 근거가 되었으며 각 신문사에 새는 교육부의 신설로 외화되었다.

조직혁신의 계기는 통신원, 모니터 제도의 도입과 각 부서 통합을 활발히 하겠다. 통신원, 모니터 제도는 사정대, 이대 등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각 사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20여개가 넘는 단위사에서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각 부서통합은 대체로 학술부, 생활부, 사회부가 사회부로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신문의

아카데미즘적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찰과 결부된 것이었다.

지면혁신의 계기는 논문위주의 편집방향에서 기사위주의 편집방향으로의 전환을 기본으로 그간 대학신문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장기 기획 연재물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현인 기사와 취재기사가 차지하게 되었다.

특색적인 것은 광고면에 있어 외대 학보 비둘기 철문을 시발로 대학소식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기존에 광고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전연화(매체혁신)의 일부라는 시각이 전연화(매체혁신)와 함께 '광고질서회복운동'이 전개됐다. 이 운동은 매체혁신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원) 것을 반영한다. 또한 1면을 취재면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편집 방향에서 1면을 신문사의 가장 중요한 머릿기사를 특징으로 구성하는 편집방식(커버스토리) 시시저널, 구미 주간신문)이 나와 많은 충격을 안겨주며 확산되었다. 90년 2학기 외대학보가 처음 실시하여 91년도에는 성대신문사, 전남대신문사, 한대신문사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대학신문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매체혁신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신문 기자들이 매체혁신운동을 전개하는데 '매체=지면'이라는 왜곡된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매체혁신운동은 단위사에서 불분명, 사회부가 사회부로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신문의

에 지면에 있어서 우편향을 낳기도 했다.

축구부 10년만에 첫 우승

92년도 한 대학신문은 학교 축구부 우승을 1번 머릿기사로 처리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매체혁신에 대한 기자들의 재평가와 새로운 흐름을 담고 있다. 매체혁신을 통해 지면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흐름, 즉 대학신문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 독자인 어떤 존재인가를 자문하게 하였다.

신문의 주인은 독자대중이다

독자가 주인되는 신문. 달리 표현한다면 독자들이 참여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신문. 대학신문 기자들은 이러한 의미의 신문, 곧 '대중신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안 읽히는 문제는 애초에 지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자 자신에게 있었고 독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전이란 출발은 왜 우리가 신문을 만든다. '독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답은 '독자를 위해서'라는 간단한 해답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테두리내에 학생,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다. 단순하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대단히 복잡하며 끊임 없는 논쟁과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작 신문의 독자는 소외되어 왔다. 독자에게 팔려야만 운영이 가능한 기성신문들과 달리 대학신문은 독자에게 원천징수되는 자급에 의해 운영되는 신문이다. 안정된 운영이 독자들로부터 보장된 만큼 신문은 독자의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인식 새로운 기자상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변하고 있는 대학신문 기자들을 본다. 활동가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항상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며 대중의 고민에 귀를 기울인다. 이 노력을 바탕으로 지면은 자연히 변하고 갔다. 매체혁신이 제기되었던 때와 같이 지면, 형식의 변화가 극심한 것은 아니다. 참신한 기획에서 발로 뛰는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 나아가 학교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 신문 제작이 중지되었던 신문사 경우는 더 절박하게 이와 같은 변화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92년도 학교당국의 강경한 탄압조치로 대학신문이 폐간될 위기에 처했던 한 신문사 기자들이 실제 겪었던 일화들 통해 우리는 독자와 함께 하고자 몸부림 치는 대학신문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

현재 대학생활정보지나 대학내 유통되는 신문은 격주간 캠퍼스라이프를 비롯, 3종류에 이른다. 또 4월19일 창간예정인 '대학정보문화' 등 몇몇의 생활정보지나 더 유통될 전망이다.

먼저 대학내 가장 유력(?)한 캠퍼스라이프는 타블로이드판 24면으로 서울시내 2년제이상 44개 대학에 총 10만부가 배포되는 대표적인 생활정보지이다. 지면구성과 면체도 취업, 컴퓨터, 레포츠, 장터 등의 정보를 공급하면서도 대학문화, 대학소식, 대학생진단 설문조사 등 부분적 언론기능도 겸하

김기현

<성대신문사 전 편집장>



"확실히 독자들은 변했다. 대학 언론도 이에 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정보매체의 증가는 대학내 언론의 지위와 역할규명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언론 나름의 특수성과 변화된 독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90년 이후 이러한 물음은 대학언론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적 문제'로 인식됐다.

기존의 전통을 고집한 편집방향으로는 너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독자들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학신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신문은 89년 이후 여론매체의 신설, 짧은 분량의 기사와 다양한 소재, 신문편집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길찾기'를 모색했다. 최근에는 몰물교한코너를 광고면에 신설하는 등의 생활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대학내의 문제) 기사를 크게 보도하는 편집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는 별개로

고 있다.

이외에 주간 '제3강의실' 캠퍼스 게시판 등도 타블로이드판으로 서울소재대학에 무료배포되고 있으며 창간예정인 격주간 '대학정보문화'는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서울 2년제이상 55개 대학에 모두 5만부 배포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의 증가는 곧 독자(즉 대학생)들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현상이다.

"많은 독자들은 전교조 문제보다 시청각실 이용방법에 대한 기사가 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설하는 등의 생활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대학내의 문제) 기사를 크게 보도하는 편집방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신문사 편집장의 불만이 다. 신문제작자들은 생활정보지의

◇ 대학생생활정보지와 대학신문

정보지 증가...대학생의 정서 반영 "대학신문의 품위는 독자들의 몫"

대학신문 제작자들은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대학생활정보지와 대학신문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는 대학내 인쇄매체를 독점해 온 이전의 환경과 달리 대학생대상 생활정보지가 대학내 새로운 매체로 등장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신세대'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대학생활정보지와 '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학신문과의 서로다른 편집방향은 독자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신문의 '상품성'을 논할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신문 특수성증의 하나는, 일간지 독자들의 수용태도가 신문편집에 미치는 영향보다 대학신문의 독자들이 보이는 '반향'이 신문편집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생활정보지와 대학신문의 관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캠퍼스 라이프의 독자는 정보의 수용자이지만 대학신문은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학생이 주인으로서 사야 하는 대학신문의 특수성은 기사를 쉽게 제안하려는 일선기자들과 수용자이지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변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최고 지성인 대학내 가장 대표적 언론매체로서의 대학신문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견지하는 것이 신문주인으로서 독자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많은 학생들이 간파하고 있다.

'대중신문'은 대중을 위한 신문이 아닌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신문이란 점을 기자와 독자는 모두 명심해야 한다.

이병민

<본사 기획위원>

春

꽃가루, 향사... 렌즈불청객을 이겨내는 봄철 콘택트렌즈 관리법

1. 손을 씻고 렌즈를 떼다듬
2. SPC액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어 문질러 세척하고(이때 단백질도 제거됨)
3. 거품이 없어질때까지 깨끗이 행군 후
4. 소독은 매일매일(열소독과 화학소독은 병행하지 않것)
5. 보존후, 착용전에 또한번 행군

중외제약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1일 1회 SPC액 서너방울이면, 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붉은 찌꺼기 제거. 하지만 렌즈착용시에 눈이 쓰이는 계절이요, 향사, 꽃가루... 대기속에 이물질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렌즈관리용품 전문공급업체 중외제약의 SPC액으로 봄철 렌즈관리를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하세요. 3가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SPC액 - 깨끗이 행거지는 수용성이라 눈에 안전하고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해줍니다.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SPC

에스피씨 액

● 수입원제품 ● 권장소비자가격: ₩ 5,500 (2개월분)

SPC를 바닷 물이나 염소관리용품을 구입한 후 라벨을 보내주세요. 자동으로 회화기능이 되어 신제품 성품 무료배송 렌즈관리용품은 렌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 본래질량: 100ml (2개월분) ■ 사용방법: 렌즈를 세척 후 건조

콘택트렌즈 관리상담실 운영: 렌즈관리 부문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점 사업소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사업소 상담실: 서울: 44-1111, 44-1112, 44-1113, 44-1114, 44-1115, 44-1116, 인천: 83-4197, 83-4198, 83-4199, 83-4200, 83-4201, 83-4202, 83-4203, 83-4204, 83-4205, 83-4206, 83-4207, 83-4208, 83-4209, 83-4210, 83-4211, 83-4212, 83-4213, 83-4214, 83-4215, 83-4216, 83-4217, 83-4218, 83-4219, 83-4220, 83-4221, 83-4222, 83-4223, 83-4224, 83-4225, 83-4226, 83-4227, 83-4228, 83-4229, 83-4230, 83-4231, 83-4232, 83-4233, 83-4234, 83-4235, 83-4236, 83-4237, 83-4238, 83-4239, 83-4240, 83-4241, 83-4242, 83-4243, 83-4244, 83-4245, 83-4246, 83-4247, 83-4248, 83-4249, 83-4250, 83-4251, 83-4252, 83-4253, 83-4254, 83-4255, 83-4256, 83-4257, 83-4258, 83-4259, 83-4260, 83-4261, 83-4262, 83-4263, 83-4264, 83-4265, 83-4266, 83-4267, 83-4268, 83-4269, 83-4270, 83-4271, 83-4272, 83-4273, 83-4274, 83-4275, 83-4276, 83-4277, 83-4278, 83-4279, 83-4280, 83-4281, 83-4282, 83-4283, 83-4284, 83-4285, 83-4286, 83-4287, 83-4288, 83-4289, 83-4290, 83-4291, 83-4292, 83-4293, 83-4294, 83-4295, 83-4296, 83-4297, 83-4298, 83-4299, 83-4300, 83-4301, 83-4302, 83-4303, 83-4304, 83-4305, 83-4306, 83-4307, 83-4308, 83-4309, 83-4310, 83-4311, 83-4312, 83-4313, 83-4314, 83-4315, 83-4316, 83-4317, 83-4318, 83-4319, 83-4320, 83-4321, 83-4322, 83-4323, 83-4324, 83-4325, 83-4326, 83-4327, 83-4328, 83-4329, 83-4330, 83-4331, 83-4332, 83-4333, 83-4334, 83-4335, 83-4336, 83-4337, 83-4338, 83-4339, 83-4340, 83-4341, 83-4342, 83-4343, 83-4344, 83-4345, 83-4346, 83-4347, 83-4348, 83-4349, 83-4350, 83-4351, 83-4352, 83-4353, 83-4354, 83-4355, 83-4356, 83-4357, 83-4358, 83-4359, 83-4360, 83-4361, 83-4362, 83-4363, 83-4364, 83-4365, 83-4366, 83-4367, 83-4368, 83-4369, 83-4370, 83-4371, 83-4372, 83-4373, 83-4374, 83-4375, 83-4376, 83-4377, 83-4378, 83-4379, 83-4380, 83-4381, 83-4382, 83-4383, 83-4384, 83-4385, 83-4386, 83-4387, 83-4388, 83-4389, 83-4390, 83-4391, 83-4392, 83-4393, 83-4394, 83-4395, 83-4396, 83-4397, 83-4398, 83-4399, 83-4400, 83-4401, 83-4402, 83-4403, 83-4404, 83-4405, 83-4406, 83-4407, 83-4408, 83-4409, 83-4410, 83-4411, 83-4412, 83-4413, 83-4414, 83-4415, 83-4416, 83-4417, 83-4418, 83-4419, 83-4420, 83-4421, 83-4422, 83-4423, 83-4424, 83-4425, 83-4426, 83-4427, 83-4428, 83-4429, 83-4430, 83-4431, 83-4432, 83-4433, 83-4434, 83-4435, 83-4436, 83-4437, 83-4438, 83-4439, 83-4440, 83-4441, 83-4442, 83-4443, 83-4444, 83-4445, 83-4446, 83-4447, 83-4448, 83-4449, 83-4450, 83-4451, 83-4452, 83-4453, 83-4454, 83-4455, 83-4456, 83-4457, 83-4458, 83-4459, 83-4460, 83-4461, 83-4462, 83-4463, 83-4464, 83-4465, 83-4466, 83-4467, 83-4468, 83-4469, 83-4470, 83-4471, 83-4472, 83-4473, 83-4474, 83-4475, 83-4476, 83-4477, 83-4478, 83-4479, 83-4480, 83-4481, 83-4482, 83-4483, 83-4484, 83-4485, 83-4486, 83-4487, 83-4488, 83-4489, 83-4490, 83-4491, 83-4492, 83-4493, 83-4494, 83-4495, 83-4496, 83-4497, 83-4498, 83-4499, 83-4500, 83-4501, 83-4502, 83-4503, 83-4504, 83-4505, 83-4506, 83-4507, 83-4508, 83-4509, 83-4510, 83-4511, 83-4512, 83-4513, 83-4514, 83-4515, 83-4516, 83-4517, 83-4518, 83-4519, 83-4520, 83-4521, 83-4522, 83-4523, 83-4524, 83-4525, 83-4526, 83-4527, 83-4528, 83-4529, 83-4530, 83-4531, 83-4532, 83-4533, 83-4534, 83-4535, 83-4536, 83-4537, 83-4538, 83-4539, 83-4540, 83-4541, 83-4542, 83-4543, 83-4544, 83-4545, 83-4546, 83-4547, 83-4548, 83-4549, 83-4550, 83-4551, 83-4552, 83-4553, 83-4554, 83-4555, 83-4556, 83-4557, 83-4558, 83-4559, 83-4560, 83-4561, 83-4562, 83-4563, 83-4564, 83-4565, 83-4566, 83-4567, 83-4568, 83-4569, 83-4570, 83-4571, 83-4572, 83-4573, 83-4574, 83-4575, 83-4576, 83-4577, 83-4578, 83-4579, 83-4580, 83-4581, 83-4582, 83-4583, 83-4584, 83-4585, 83-4586, 83-4587, 83-4588, 83-4589, 83-4590, 83-4591, 83-4592, 83-4593, 83-4594, 83-4595, 83-4596, 83-4597, 83-4598, 83-4599, 83-4600, 83-4601, 83-4602, 83-4603, 83-4604, 83-4605, 83-4606, 83-4607, 83-4608, 83-4609, 83-4610, 83-4611, 83-4612, 83-4613, 83-4614, 83-4615, 83-4616, 83-4617, 83-4618, 83-4619, 83-4620, 83-4621, 83-4622, 83-4623, 83-4624, 83-4625, 83-4626, 83-4627, 83-4628, 83-4629, 83-4630, 83-4631, 83-4632, 83-4633, 83-4634, 83-4635, 83-4636, 83-4637, 83-4638, 83-4639, 83-4640, 83-4641, 83-4642, 83-4643, 83-4644, 83-4645, 83-4646, 83-4647, 83-4648, 83-4649, 83-4650, 83-4651, 83-4652, 83-4653, 83-4654, 83-4655, 83-4656, 83-4657, 83-4658, 83-4659, 83-4660, 83-4661, 83-4662, 83-4663, 83-4664, 83-4665, 83-4666, 83-4667, 83-4668, 83-4669, 83-4670, 83-4671, 83-4672, 83-4673, 83-4674, 83-4675, 83-4676, 83-4677, 83-4678, 83-4679, 83-4680, 83-4681, 83-4682, 83-4683, 83-4684, 83-4685, 83-4686, 83-4687, 83-4688, 83-4689, 83-4690, 83-4691, 83-4692, 83-4693, 83-4694, 83-4695, 83-4696, 83-4697, 83-4698, 83-4699, 83-4700, 83-4701, 83-4702, 83-4703, 83-4704, 83-4705, 83-4706, 83-4707, 83-4708, 83-4709, 83-4710, 83-4711, 83-4712, 83-4713, 83-4714, 83-4715, 83-4716, 83-4717, 83-4718, 83-4719, 83-4720, 83-4721, 83-4722, 83-4723, 83-4724, 83-4725, 83-4726, 83-4727, 83-4728, 83-4729, 83-4730, 83-4731, 83-4732, 83-4733, 83-4734, 83-4735, 83-4736, 83-4737, 83-4738, 83-4739, 83-4740, 83-4741, 83-4742, 83-4743, 83-4744, 83-4745, 83-4746, 83-4747, 83-4748, 83-4749, 83-4750, 83-4751, 83-4752, 83-4753, 83-4754, 83-4755, 83-4756, 83-4757, 83-4758, 83-4759, 83-4760, 83-4761, 83-4762, 83-4763, 83-4764, 83-4765, 83-4766, 83-4767, 83-4768, 83-4769, 83-4770, 83-4771, 83-4772, 83-4773, 83-4774, 83-4775, 83-4776, 83-4777, 83-4778, 83-4779, 83-4780, 83-4781, 83-4782, 83-4783, 83-4784, 83-4785, 83-4786, 83-4787, 83-4788, 83-4789, 83-4790, 83-4791, 83-4792, 83-4793, 83-4794, 83-4795, 83-4796, 83-4797, 83-4798, 83-4799, 83-4800, 83-4801, 83-4802, 83-4803, 83-4804, 83-4805, 83-4806, 83-4807, 83-4808, 83-4809, 83-4810, 83-4811, 83-4812, 83-4813, 83-4814, 83-4815, 83-4816, 83-4817, 83-4818, 83-4819, 83-4820, 83-4821, 83-4822, 83-4823, 83-4824, 83-4825, 83-4826, 83-4827, 83-4828, 83-4829, 83-4830, 83-4831, 83-4832, 83-4833, 83-4834, 83-4835, 83-4836, 83-4837, 83-4838, 83-4839, 83-4840, 83-4841, 83-4842, 83-4843, 83-4844, 83-4845, 83-4846, 83-4847, 83-4848, 83-4849, 83-4850, 83-4851, 83-4852, 83-4853, 83-4854, 83-4855, 83-4856, 83-4857, 83-4858, 83-4859, 83-4860, 83-4861, 83-4862, 83-4863, 83-4864, 83-4865, 83-4866, 83-4867, 83-4868, 83-4869, 83-4870, 83-4871, 83-4872, 83-4873, 83-4874, 83-4875, 83-4876, 83-4877, 83-4878, 83-4879, 83-4880, 83-4881, 83-4882, 83-4883, 83-4884, 83-4885, 83-4886, 83-4887, 83-4888, 83-4889, 83-4890, 83-4891, 83-4892, 83-4893, 83-4894, 83-4895, 83-4896, 83-4897, 83-4898, 83-4899, 83-4900, 83-4901, 83-4902, 83-4903, 83-4904, 83-4905, 83-4906, 83-4907, 83-4908, 83-4909, 83-4910, 83-4911, 83-4912, 83-4913, 83-4914, 83-4915, 83-4916, 83-4917, 83-4918, 83-4919, 83-4920, 83-4921, 83-4922, 83-4923, 83-4924, 83-4925, 83-4926, 83-4927, 83-4928, 83-4929, 83-4930, 83-4931, 83-4932, 83-4933, 83-4934, 83-4935, 83-4936, 83-4937, 83-4938, 83-4939, 83-4940, 83-4941, 83-4942, 83-4943, 83-4944, 83-4945, 83-4946, 83-4947, 83-4948, 83-4949, 83-4950, 83-4951, 83-4952, 83-4953, 83-4954, 83-4955, 83-4956, 83-4957, 83-4958, 83-4959, 83-4960, 83-4961, 83-4962, 83-4963, 83-4964, 83-4965, 83-4966, 83-4967, 83-4968, 83-4969, 83-4970, 83-4971, 83-4972, 83-4973, 83-4974, 83-4975, 83-4976, 83-4977, 83-4978, 83-4979, 83-4980, 83-4981, 83-4982, 83-4983, 83-4984, 83-4985, 83-4986, 83-4987, 83-4988, 83-4989, 83-4990, 83-4991, 83-4992, 83-4993, 83-4994, 83-4995, 83-4996, 83-4997, 83-4998, 83-4999, 83-5000, 83-5001, 83-5002, 83-5003, 83-5004, 83-5005, 83-5006

◇대학문화 시평 - '술'

음주가는 많지만 酒道없는 현실

현대인의 술은 이해타산적이며 풍류·고향없는 술

어느 시인은 젊은 날의 8월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바람은 취풍(醉風)이라. 한자부 불바람 속에 취하여 왔다가 취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거늘 부질없는 꿈속에서 무엇을 잡겠다고 헤매이는가. 일두주(一斗酒:한말의 술)에 대몽(大夢)에서 깨어나 백년 덧시름 있을 일의 의논하세.

대 꿈을 누가 먼저 깨달을 것인가 평생에 나 스스로 알고 있노라

— 재갈공명

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노아의 방주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 동양에서는 堯시대에 술을 만들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동명성황후나 위지동이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여하튼 술의 기원이 기원전 6천년전 부터라고 하나, 나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있었다.

내 비록 주졸(酒卒)이나 누은소 발로 박차 언저 놓아 지를 타고 등서고금의 주호(酒豪)들을 만나보고 도연(陶淵明)히 취해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이백의 말을 찾아와 이백의 주호들의 술잔에 띄우고자 한다.

일두주에 대몽을 갠 소를 타

고 황해를 건너니 주선(酒仙)이 백의 시 한수에 마호타이 한잔이로구나.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이 귀하다 할 것이나 다만 원전대 오래 취해서 깨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으로부터 성현은 죽으면 격할 따름이나 오직 술 잘 먹는 자 그 이름을 남기리라

좋다 마오, 아무리 아한 여지도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 바라보고 생각하던 것을 보여주지 못하다. 일두주는 가장 은밀한 곳도 보여준다.

주선 바카스가 추방된 인도를 지나 페르시아로 가니 호메이이는 간대 없고 그 이름만 모래위에 남았는데 오마르카이양의 루바이아트만이 영원하네.

한 항아리 홍주(紅酒)에 한수의 노래있고 그 위에 목숨이을 양식만 있던니 너와 함께 비록 누욕에 살지라도 마음은 왕후의 영랑보다 즐거우리

지중해를 건너 예이츠의 시를 안주로 포도주 잔잔하고 태평양에 깃대기 태양을 토해낸다.

술은 입으로 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진리라 할 전부이리라

초가집 마루에서 봄꽃음이 죽하니 창밖에 날이 더디고 더디도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노라

색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노라

일두주 속에 우주의 성주괴공(成住壞空), 인생의 생로병사, 한 생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이다. 있으니 생사없는 대자유를 이밖에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존재와 인식의 끊임없는 충돌속에서 반도를 안고 고쳐하는 이백의 주호들이여, 해와 달을 등안불로 온 우주를 주막삼아 함께 거니워 취하여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무아(無我)의 고향을 찾아가세

그대여, 무애가를 부르라. 나는 생사를 안주로 열반주를 마시리라.

한 중광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일명:기회시리즈 '여성'과 성의 재인식' 비변제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는 다음호(제1122호)에 실립니다.

하루를 이불삼고 땅을 자리로 깔고 산을 베개삼고

달로 촛불하고 구름으로 방풍 처마 바다로 슬던지 삼아 크게 취하여 일어나 출주나니

그대여, 무애가를 부르라. 나는 생사를 안주로 열반주를 마시리라.

한 중광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일명:기회시리즈 '여성'과 성의 재인식' 비변제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는 다음호(제1122호)에 실립니다.

달해! 선장에



모래의 힘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상징하는 표어가 있게 마련인데, 필자가 어렸을 때에 '모래'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 교실이나 복도 곳곳에 그러한 표어가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유행하고 훌륭한 말이라고 크게 믿었다. 조금 더 자라서 주위의 어른들이 우리의 민족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역시 그 표어는 유행자극 하는 성격과 함께 한국인의 무단결정(無斷決定)이 한사람이 생각하였던 적도 있었다.

그 이야기,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보다 우수하다. 두사람 이상 모이면 지나갈 나사 단결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까닭에 한국인 세사람이 일본인 두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때 필자는 어린 마음에 우리의 민족성은 모래와 같은 것이란, 그래서 일본에 당하였던 것인가 하는 좌절에 빠졌던 것이다.

모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모래는 질투와는 달리 정착성이 없어 늘 흘러 다니다가 그 위에 지는 짐은 무너지기 쉽다 하여 사상누각이란 말도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 건축에 있어서 모래는 철근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축 자재이며, 우리는 노대유정권의 200만호 주택 건설 정책으로 인하여 겪었던 건축 자체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 모래가 부족하여 바닷모래까지 파다가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철근과 모래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철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모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의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모래 한알 한알의 역할보다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철근(대통령)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여 왔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대들보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고, 또 그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사적이었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들보가 되어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계 등에서 대들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볼 때, 일부를 제외하고 대들보는 말할 것도 없고 들보까지도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탐욕은 도를 넘었으나 그들은 반성의 기회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 축적은 정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자신의 피와 땀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모래 한알 한알의 몫을 가로챈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썩어 문퐁어진 총체적이며 구조적인 환부에 놓였는지 신한교 창조를 표어로 내세우고 있는 김영삼 정부도 제대로 갈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역사에서 배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주위의 열강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를 이어나가 지켜 온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쪽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대들보가 아닌 모래쪽이었다. 국난을 당해 대들보가 강화되도록 의주로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 죽음으로 이 땅을 지킨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나 있지 않은 모래였다.

그런데 도망쳤던 대들보가 과평정하게 이 땅을 탐욕스럽게 끌어 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물려 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치권이 이 지경이니 재계를 비롯하여 공직이 아닌 분야의 탐욕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모든 것이 도를 넘으면 모자란만 못하다. 공수래공수거·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부자삼대 가가 어려운 법이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모래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모래 자신도 흩어지기 쉬운 속성이라고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시멘트와 같은 매체를 만나면 모래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힘없는 모래이므로 자신은 선(善)이라는 명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음식속에 들어가 그 음식을 망치는 모래도 있으니 말이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 오는 불청객이 있다. 중국에서 날아 오는 황사가 그것이다. 작은 모래 한알 한알이 바람이라는 매체에 의해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래도 몸치면 강한 것이다.

뜻밖의 메아리

정신계와 물질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개발해 주는 것이 선사상이다.

선사상은 인도불교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나 선사상의 연구가 중국의 '선'을 연구하는 선을 넘어 서지 못했다.

'인도불교의 선사상'은 그런 의미에서 선사상의 근본을 알리고 그 학문적 이해를 넓혀라 한 조치 않은 책이다.

선사상의 원류가 무엇인지를 논전을 대상으로 소승선과 대승선으로 나누어 정리한 이 책은 선과 교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명해 온 인도불교의 특징을 잘 살려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에도 쉽게 읽을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운 인도불교의 선사상을 교리적 논에서 풀려내 집약한

선사상의 학문적 이해 접근 대중생활속 선수행에 도움

책이므로 다른 연구에서 볼 수 없는 선사상의 기초적인 면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소승불교 계통과 대승불교 계통의 선사상이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학문적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쓰기 시작됐다'며 동기를 밝히는 오원근(본교 불교학과)교수는 그동안 선사상에 대한 연구서나 신서를 내놓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다.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책과 일치가 되는 가운데 선수행을 통해서 생활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스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가령 책을 모든 사물을 관찰하든 모든 삼라만상이 관찰의 대상으로 깨달음의 대상이라는 마음의 수행과 관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청정한 심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선의 수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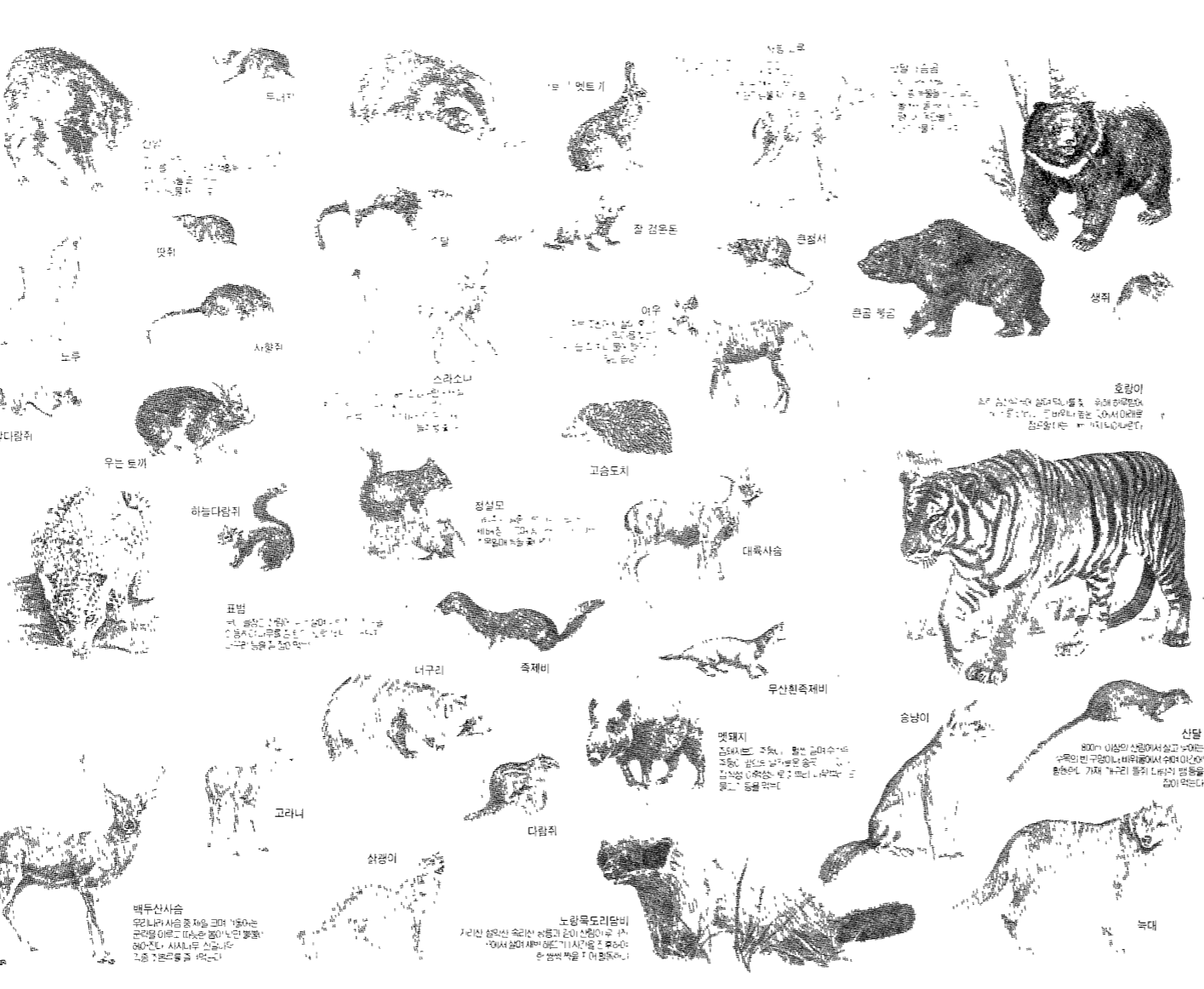
투고시

지난 겨울사랑

김 선 식 <아간강좌 경영학과>

지난 겨울 당신과 헤어지고난 후 의로움과 감동함에 많은 겨울밤을 지새웠습니다. 내리는 눈꽃송이들 속에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나 당신이 내마음 속에 고인 눈꽃송이 당신 가슴에 떠돌던 은행나무일 은행나무 가지들이 웃음을 다 벗어버리고 앙금으로 흔들릴 때 당신과 사랑하며 당신 가슴과 내가슴에 채웠던 사랑 사라져버린 빈가슴에는 겨울바람만 불었습니다. 창가에 비취어는 달빛을 눈길로 실으며 반딧불이 어리는 당신 불을 어루만지며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슬픔만큼 가슴 아프게 배웠습니다. 지난 겨울 당신과 헤어지고난후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내자신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작은 시련에 무릎 꿇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내 마음들이 끝없이 내리는 눈꽃송이발에 무너지며 가슴 아프게 싸웠습니다. 당신 생각나십니까? 당신 입술에 진달래꽃들 물들 때 타일락 향기와 매운 연기 속에서 당신은 처음 따뜻한 입맞춤을 나에게 주셨지요 살며시 그리고서로 참관찰할거리는 마음으로 본 세상을 그전보다 예뻐 보이고 싶어만 보였지요 예전에 그냥 지나치던 천국의 맑은 꽃망울이 엄마의 눈물방울임을 알고 지지도를 지나다 만나는 백설기꽃 팔고있는 할머니의 깊은 주름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쉽게도 동료처럼 벗어났던 울던 찰칵소리가 갈매꽃 풀잎에 영근 남산의 이슬방울을 떨군다는 사실을 어린애가 말을 배우듯 마음이 새록새록 자라던 깨달음 되었습니다. 당신이 애써서 좋아하던 세미꽃 피는 봄의 길목에서 오늘도 쫓는 서정미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힘든 하루의 세상살이였지만 당신과 헤어지고난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아픔인 것을 가르쳐주신 당신, 당신이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내마음에 고이던 고요수룩 아득한 눈꽃이 고이던 당신이 바로 초극이되는 평범한 사실을 자신있게 가르쳐주신 당신의 가슴 위에 눈꽃을 올렸습니다. 하나 파랗도 푸랗도 없이 기쁨도 슬픔도 사랑하기 부족한 것마저 미운것까지도 다 나에게 내뿜었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사랑하지 못한 나는 참 미안하든 소년이었습니디. 지난 겨울 당신과 헤어지고난 후 아픈 후에 내마음은 너무나 자라나 당신과 향기가 마음 맑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따뜻한 입맞춤을 준 학원밖 피는 사랑이 오면 이제 내마음을 당신에게 열어 드리겠습니다. 오월 꽃향기 잔여와 함께 가을을 전한 지혜속과 푸르다 맑아 울렸던 미안하기를 울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든 소년은 회초리로 매려 사람을 일깨워준 광선에게 이별 자물이 오면 저를 띄워 달아 은행나무로 서있겠습니다.

야생의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푸른 산 골짜기의



'93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3) '한국의 야생동물'

산과 들에 눈이 두껍게 쌓이는 겨울밤이면, 할머니께서는 단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맹수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멧돼지나 여우 같은 텃짐승들은 심심하게 볼 수 있었으며, 이따금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서 뿔에 나타나 뿔이 되면 문밖출입을 삼가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올맹스러움에 비해 행동이 부드럽고 친화적 우리 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된 백두산호랑이, 울퉁한 털복숭이 같지만 지혜롭고 행동 또한 정교숙취처럼 재빠른 반달가슴곰, 한반도 특산종으로 협주한 적벽 등에서 사는 한국산양 - 한반도는 비록 크지는 않으나 본래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아 크고 작은 텃짐승들의 낙원이요, 야생의 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자연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어디론가 그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생의 숨소리가 끊긴 텅 빈 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보기가 딱딱한 열매를 아주 쉽게 까먹는 숲 속의 귀염둥이 청설모, 너무 타기의 명수 노랑목도리새, 물감취가 있어 해염을 잘 치는 수달, 흑사라도 어느 산, 어느 계곡에서 이들을 만나거든 손을 흔들며 반갑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새싹들이 돋아나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곰, 고슴도치, 다람쥐 등이 귀여운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나면 조용히 반가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과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무를 심고 기꾸며 푸르려 숲과 맑은 물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과 푸른 강산의 친구들은 사라져가게 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우리의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때문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하는 일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억여의 기금조성을 통하여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리스크, 나무사랑대회, 나무사랑의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개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분의 실천사례를 모집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환경보호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 한킴벌리는 그 소중한 실천사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금폭을 우선해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글은 "환경보호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모든 이들에게 환경보호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서울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3 유한킴벌리 홍보실
문의 전화: (02)528-1053~9 FAX: 556-1615

계속한 바움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부속병원 시설 증·보수 시급

경주병원 보수공사이후에도 공간부족 여전 증축공사 늦장으로 문제점 노출 포항병원

동국대학교 의료원(원장=민병천)은 93년을 맞아 대규모 증축·보수 및 시설보수 공사 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주한방병원(병원장=이원철·한방내과)은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20일 완공 일정으로 병실·난방시설 및 물리치료실 공간확충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병원은 대학부속병원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협소한 공간으로 입원병상 가동을 1백%를 기록하며 그동안 대인 의료 서비스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방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병실의 증축 및 병상마다 칸트를 박스 설치하고 내부 도장공사등을 끝마쳐 이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수공사만으로

는 공간부족에서 오는 경우 한방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의대와 병원의 유기적 신장·발전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분당한방병원확공이 조속한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과 교수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철 한방병원장은 현재 한

방병원의 문제점으로 임상과목의 50%가 외래과사에 의존하는 현실 △진료공간 및 임상실습공간 부족등을 꼽으며 "분당병원 설립 현안문제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대안이며 한의대와 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병원(병원장=최수성의학)은 작년 8월 재단과 포항병원 증축에 합의하고 의료원장을 포함한 4인의 증축위원회를 구성, 올해초까지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아직 설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 건물 7백평 규모로 1백병상을 증설하고 IBCD자관을 도입 의료 기자재를 들여오기로 한 이번 증축안은 설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항병원은 지난 88년 기동병원을 인수해 운영 하고 있으나 부족한 의료진과 공간확보 문제, 주차시설의 파포자와 의료기자재부족등 병원운영상의 총체적 제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주병원 정장현 기획과장은 이에대해 "포항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분당병원 및 포항병원등의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의료서비스 개

선의 노력과 재단·학교를 포괄하는 전통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개발 대학원 초청강연회 개최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시배·경제학)은 93학년도 제1학기 초청특별강연회를 오는(14일) 오후7시30분에 전통관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인 자세'라는 주제로 현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겸 경영경제 연구소장인 전성일(경영학 박사·미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민주부총장위한 서명운동 벌이는 이승준군을 만나 “경주캠 독자행정 기반 닦을 터”

부총장 인사에 따른 학원 각주체들의 마찰들은 93학년도 상반기 경주캠퍼스 학내문제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시간이다. 방중에 있었던 재단과 학생회측의 심한 마찰양상과는 달리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원민주화 추진 위원회(이하 학민추)는 지난 8일부터 민주부총장 옹립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학민추 위원장인 이승준(경제4)군을 만나 서명운동의 의의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 서명운동을 계획한 동기의 의의는
=학생회의 비대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교수회측의 미온적인 움직임등 학내전반적으로 이번 인사의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구제적인 행동에 옮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서명운동을 구상했으며 이는 일반학생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 인사의 근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재단의 전횡적 횡포이다. 이는 중속적인 경주캠퍼스 행정에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민주부총장 선출을 위한 올바른 형태와 그 단계는
=학원의 3주제인 교수, 학생, 직원등에 의해 부총장 선출은 이뤄져야 하지만 현 시기에 이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수반한다. 우선 교수회에서 선출했던 방식을 고수하고 장기적으로 민주적 부총장 선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부총장 선출이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부총장 선출방식의 고수가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의 진전적인 해결방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부총장 선출은 재단의 횡포를 막아내고, 경주캠퍼스 독자적 행정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 이후 활동방향은
=가두서명운동 외에 과학성회에서 일반학생들의 참여작업을 통해 7천학우의 결의를 모아 재단과 학교 교수회등에 통보하여 이번 '부총장 낙점'의 불원칙성을 확인시켜 민주부총장 옹립을 권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다. 이 학원의 주인인 전체학우들의 단결된 모습이 없는 한, 어떠한 학내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은방광학우들에게 깨닫도록 당부하고 싶다.

<김태성 기자>

학복위 식당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 식비인상 이후 음식질 향상 없어

학교식당 식비가 지난달 인상되었음에도 음식의 질, 위생, 식당환경등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유원석·법4)는 불시에 식당 위생감사를 실시해 학생회관을 비롯한 구내식당에 시정 공문을 보냈다.

또한 학복위는 지난 7일 해오름식의 한 행사를 학내 식당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3.3%인 상당 식비에 따른 학우들의 의견과 식당분업화에 대해 여론을 묻는 것으로 다음주에 분석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학복위는 식비인상의 일차적 조건이었던 음식의 질과 위생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않아 식당분업화로써 원활한 식당운영과 환경개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식당편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영양사)씨는 "작년에 비해 절적인 면은 대체로 향상되었으나 공간현소와 종업원 수의 부족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무측에서는 학교주변의 식당부채로 인해 12시간 지속가동해야하는 어려움과 메뉴의 다양화에 따른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나 학기초 일방적 식비인상 통보와 인상후의 개선점 미비등의 관리를 소홀리하는 업무측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아 학복위의 견수령과 사업진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총학생회운영위 예산분배 동결 결정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운영위(위원장=정순현·경영4)는 지난

9일 비상총회를 열고 1학기 예산분배를 작년 1학기 기준으로 동결했다.

이번 1학기 예산분배는 각 학생회기구 총무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진통을 겪은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 총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분배계획을 살펴보면 △총학생회 28% △총여학생회 7.3% △인문대학생회 11.96% △상경대학생회 10.99% △법정대학생회 7.55% △자연대학생회 8.27% △한의대학생회 4.77% △의과대학생회 3.26% △승아리연합회 10% △학학연합회 2.3% △총대의원회 3.3%등의 분배율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대 학생 전원 유급 위기 교양과목에 한한 부분파업 예상돼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박호진·한의학2)는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해 지난 3월18일부터 수업거부투쟁에 들어 갔으나 보사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 한의사 협회는 지난 2일 롯데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민족의학 수호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약사의 한약 조제 불법화등의 급지 조항을 삽입한 입법안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에 있는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적 결함이 없다고 표명하고 빠른 시일내 보사부장관과 한의사협회장 면담을 통해 보사부내 한의학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해 전국 한의과대학 생의연합 상임위는 학교별 유급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각 학교 학생회로 일임했다.

이에 보고 한의대 학생회 회장 박군은 예과 학생의 경우 교양과목에 한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뜻을 비춰 예과학생에 한한 파업이 부분적이거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파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한의대 교수 면담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성기·한의학2) 집행부 논의를 거친 뒤인 다음 주 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과소식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과동아리인 노래패 하들들이 15일 오후5시 원효관 4층 소강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정보산업학과
전학4년이 참여하는 연합 MT가 4월16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주왕산에서 열린다.

관광경영학과
학술부에서 매주요일 오후1시 listening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디오 상영을 실시한다.

한외
약사법개정의 보다 폭넓은 투쟁을 위해 한의대생들은 4월12일부터 귀향서명운동에 나선다.

회 간부학교를 연다.
여학생회가 있는 파는 철학, 한문, 국사, 수학교육, 생활학, 화학, 경영, 야간 경영, 회계, 한외학, 의학 등 모두 11개 과가 있으나 그동안 연대부족으로 인한 대중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지적, 이행사를 통해 일반적인 성취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총여학생회와 과여학생회의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자과대학생회
대동놀이마당 펼쳐

경주캠퍼스 제6대 자연과학대학생회(회장=박용주·수교4)는 오는 15일 93 자대인 대동놀이마당을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지난 7.8일과 12.13일 나홀로 안 축구, 발자구, 피구, 씨름등에 행사가 펼쳐진다.

졸업자 취업률 예년과 비슷 단대별·성별 격차 심해

경주캠퍼스 학생과(과장=이종석)는 지난 2월26일을 기준으로 한 92학년도 졸업자 취업현황을 발표했다.

92년 2월말 현재 경주캠퍼스의 순수취업률(전체 취업률에서 대학원 진학, 군입대, 고시준비, 유학등을 제외한 취업률)은 작년과 변함없이 43.6%에 그쳤다.

한편 전체취업률은 작년 47.3%보다 3.4% 증가한 50.7%(남자 55.8%, 여자 39%)로 나타났다.

또한 단대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의대의 경우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보이면서 100%의 전원 취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외대 또한 90.5%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밖의 단대들은 작년 43.9%에 비해 3%증가했으나 50%선을 밑도는 46.7%를 나타냈고 여학생의 취업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극히 저조한 39%에 머물렀다.

국문과 학생회 백일장개최

국어국문학회(회장=이종재·3)와 동국문학회(회장=조용국·국문4)가 공동 주최·주관 하는 교내 백일장이 총학생회와 동아리 모두모듬 후원으로 오는16일 오전11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녹아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백일장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장원1명, 운문과 산문 각각 2명씩 모두 5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조용국 동국문학회장은 "지난 79년부터 실시되어 1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백일장이 과거의 2·3백명 응시와는 달리 최근에는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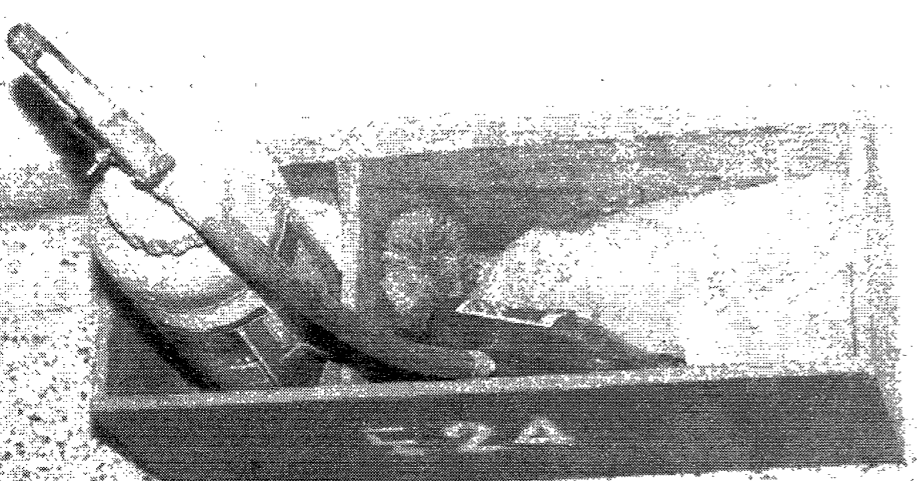
가지로 극히 저조한 39%에 머물렀다.

총학 4·19 기념행사 실시
마라톤 대회등 내용 다채

경주캠퍼스 제10대 총학생회(회장=정순현·경영4)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교내, 경주시내, 남산일원에서 93년 4·19민중혁명기념행사를 실시한다.

4·19기념행사를 살펴보면 새내기 백일장은 오는16일 오전10시부터 녹아원 및 교내일원에서 동국문학회와 국어국문학과 공동주최로 개최한다.

또 4·19제승모 및 마라톤대회는 오는20일 오후1시부터 동대 문화의 거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경주역전과 아태시장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마라톤 신청자 접수는 지난11일부터 19일까지 중앙교과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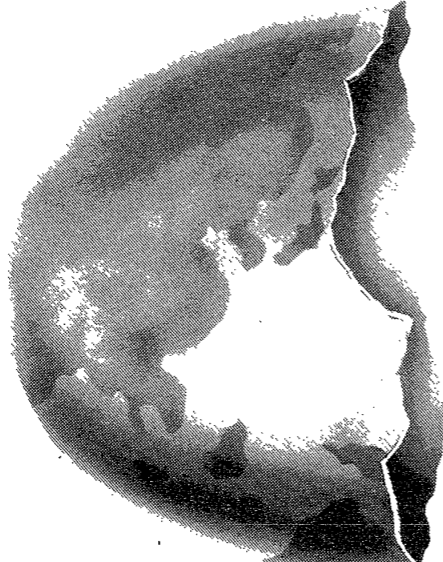


불 조심

◇경주도서관 시설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명등은 누전위험이 있으며 소화기는 확인점검이 되지 않아 사용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발소독까지 공부하는 도서관 시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루빨리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전현철 기자>

“어떠한 성취도 도전 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나타납니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 현장—종합건축사제에서 도로,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에는 바로 이런 젊음들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종합건축사제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단체교섭 위기직면

직원노조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 필요 시기상조, 논의대상 아니다 학교당국

인근인상폭 8%선 될 듯

93년도 단체교섭이 지난달 10일부터 6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지난 12일 최종 협상으로 예상된 6차교섭이 결렬됨으로써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차교섭부터 김영삼정부의 고통분담제기로 손조를 지 못했던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했던 이번 단체교섭은 이로써 쟁의발생인교후 파업으로 가나,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느냐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차교섭은 지난 12일 오후 5시 교무위원회에서 학교측 대표인 민병천총장및 노조측 대표인 장운(관제과)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교건의 쟁점사항이었던 자연승급분의 임금인상을 포함여부,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에 직원참여 보장, 여직원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측은 "우리측은 자연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8%선 인상과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마련을 위해 노사 양측이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안을 제외한 기타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측의 경직된 입장과 수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총장선출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이에대해 벌써부터 이야기가 오간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 사협의회의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6차교섭에서 학교측의 태도에 대해 김용길 직원노조사무장은 "학교 지도부의 지도력과 교섭대표의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측은 총장선출 문제를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제동을 의식해 결단을 못내리는것 같고 또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6차교섭까지의 결렬로 노조측은 노후부여 쟁의발생인교를 할수있게됐으며 쟁의발생인교이후 냉각기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을 돌입할수 있게된다. 이후 노조측은 운영위원회나 집행부회의를 통해 노조총회집회를 확정하고 총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차까지의 협상에서 노조측이 제기한 행정업무편람 제작은 학교측에서 만들기로 했으며 임금인상률은 8%선에서 타결될것으로 보이나 학교측의 자연승급분 인상률포함 주장으로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올해는 화학과와 기계공학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본교는 신설 5년이 되지 못한 기계공학과를 제외한 화학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화학과는 1주2회의상의 과목수위를 진행하고 (학과장 김홍범교수) 과 6인의 교수들이 전문분야를 나눠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중이다"라고 밝혔다.

학과평가인정제 '물리학과 우수' 전자공학과 교육시설확충 요구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난해 전국대학대학원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에 한해 실시한 학과평가인정제 결과가 지난달 31일 발표되어 본교 물리학과는 상위권 평가를 받았으나 전자공학과는 전국 45개 대학중 우수 17개대학 평가 기준의 상위권 평가를 받지 못해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77개 교중 상위 20개교에 포함된 시설 및 재정과 학생영역등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아 총결에서 우수학과로 평가됐다.

반면 전자공학과는 크게 6개 항목으로 구분된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평가를 받아 낙후된 교육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 평

가이전 실시한 전자공학과 자체 평가에서 강의실 부족등의 공간 협소, 근년간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기자재 설비 취약 등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결과발표에 대해 강태원(물리학과 과학관장)교수는 "학과평가가 타성에 젖은 과학 교육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좋은 제도"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상위권 대학만 발표하고 전체등수를 공개하지 않아 내내외적에 형성된 학교도 오인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과평가인정제도가 전체적인 면에서만 평가하므로 각 학교 나

름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힘들어 상대적 평가가 될 수는 없다"라며 학과평가인정제의 객관성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올해는 화학과와 기계공학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본교는 신설 5년이 되지 못한 기계공학과를 제외한 화학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화학과는 1주2회의상의 과목수위를 진행하고 (학과장 김홍범교수) 과 6인의 교수들이 전문분야를 나눠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중이다"라고 밝혔다.

제25대 총대 정기총회 학생회비인상안 상정

오는 19일 1/4분기 감사

제25대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 이단 부의장-출범식및 정기총회)는 오는 15일 다량관(2층 보리수)에서 열린 1/4분기 감사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 정주영 총대의원회 의장은 "전학대회의로 조직적 전환의 시발점이자, 토대구성의 장이며 각과의 대의인들 간의 단결과 단합의 장이다. 또한 제25대 총대의원회의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인준등 동약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은 △제25대 총대의원회 사업계획보고 △감사사업 △1학기 학생회비 분배안 인준 △2학기 학생회비 인상안 의결 등이다.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 이승현(산공3)총대의원회 사무국장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의 혁신에 못지않게 새로운 운동은 위한 물적토대 구축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평균 학생회비는 7천6백30원이며 총대의원회에서 제시한 학생회비는 현재보다 3천원이 인상된 8천원이다. 감사대회는 이 사무국장장은 "사업, 조직, 예산, 공약, 비품등 학생회 모든 영역들에 대한 평가사업으로 학생회뿐만 아

니라 모든 자치기구의 강화에 복무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회는 1/4분기 감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조직감사와 사업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이를 공개한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단과대별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학 의견개진운동 총 1천8백여부 수거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 국교4)는 의견개진운동을 지난 9일 마감하고 결과분석에 들어갔다.

이번 의견개진운동에서 총4천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사범대 3백30부 수거를 비롯해서 1천8백여부가 수거됐다.

한편 총학생회측은 이번주 안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주관식 문항의 분석등의 문제로 분석이 늦어지고 있으며 오는 19일경이나 해야 발표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석은 1천4백여부 정도 이루어졌다.

녹원스님 범어특강

불교대학원 학생회(회장-이시찬 불교사3학기)는 오죽헌 이사장을 초청해 학생, 대학원생을 위한 범어 특강을 오는 19일 오후5시 정각관에서 개최한다.

체교과 박태군군 사망

수중탐험연구회 소속 부원 박태군(체교1)군이 지난 5일 동아리 활동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체육교육과 학생회(회장-안계성)는 본교 학림관 뒷편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한편 수중탐험연구회에 사인 계획성과 안전점검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공개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 불교대 학생 60여명은 지난 13일 해불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함의 방문을 가졌다. 사진은 불상앞에서 있었던 사진 촬영시 장면.

제17사단 전차대대 해불사건 파문 본교등 불교계 강력 대응키로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에서 발생한 호국신사범 범당 폐쇄와 해불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불교대 학생회(회장-김창모 불교4)는 지난 13일 국방부 항의방문을 하는등 대응을 벌이고 있다. (관련인터뷰 4면)

이번 사건은 당시 17사단 전차대대장인 조병석 중령이 군수 총 필리 창고가 좁다는 이유로 범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태워버렸다는 불교계측의 지난11일 보도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의 파문이 점차 확산되자 국방부(장관-권영해)는 지난 9일 이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할것을 육군본부에 지시하고 국방부장관이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육군 제17사단 전차대대의 범당폐쇄와 불상훼손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세심한 종교활동 보장"이란 제목의 장관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모든 지휘

관은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와 편향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하고 "최근 특정부대에서 종교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고 종교상징물을 유기시키는등의 처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있은후 조병석 중령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본교에서는 이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불교대학실장에서 긴급 불교대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정부당국에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25대 불교대 학생회는 △군최고 통수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 해명 △국방부장관 17사단장격의 즉각 사퇴 △조병석 중령의 구속 수사 △군내외의 만연된 편파적 종교정책 즉각 시정 △총단 지도층의 대오각성과 사건의 진위를 모든 불자에게 정확히 알릴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교대 학생 60여명은 지난 13

일 국방부 항의방문을 갖는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학과소식

불교학과
학생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학생 상호간의 결속력을 다지기위해 춘계불교학담을 실시한다. 총담, 전담, 전담의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담사는 대학원생도 함께 한다.

경영학과
오는 30일까지 학회지인 '타래'의 원고를 모집한다. 학생들의 시·논문·수필·교수 글 등이 실린다.

화학공학과
열과 물질전달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김평진(미) 이리조나주립대학(박사)의 강연으로 12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졸업자구호
○... 얼마전 운방물 학생복지위원회의 사업으로 "걸어서 성진동까지"라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이번 운동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담에 강의의식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10분에 20여대의 들어오는 택시속엔 예뻐한 화장을 하고 유유히 혼자 타고 들어오는 여학생으로 교문이 붐비고 더군다나 그중 30% 이상이 학교 바로 앞동네 성진동에

서 승차한 손님들이라고. 이를 지켜보던 담당관 학생복지위원회 관계자 "3D현상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모양"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

가?

○... 본교의 철관이 너무 진한 분위기를 하고 있어 문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자리를 지켜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날아버린데다 하얗게 자욱이 남은 철관은 교수님들은 물론 학생들의 짜증내는 소리만 연발하게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떨치지 않은 지우개로 닦는것도 문제

학부위의 "걸어서 성진동까지" 캠페인에도 택시업계 여전히 호황
가 되고 있다고. 자전에서 열심히 철관을 지우던 한 학생 한이다 "학교당국에서 남은 철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본분을 쓰는게 낫겠네요."

○...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주요건물에는 93년은 책의 해,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라는 대형플래카드가 1백50여개나 걸려 있다는 소식.

실제로 전국2백81개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총수는 7백79만5천2백21권으로 국민 1인당 0.18권, 2백81개 공공도서관

이상이 학교 바로 앞동네 성진동에 서 승차한 손님들이라고. 이를 지켜보던 담당관 학생복지위원회 관계자 "3D현상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모양"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

성명서

동국중흥을 위한 첫 걸음...

동국중흥 한마당(가칭)성사로 전 동국인의 총의를 모아 냅시다.

삼가 귀의 하옵고, 전 동국인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시길 바랍니다.

개교 1백 주년을 눈 앞에 둔 조계종립대학으로 민족 사학 87년의 전통은 전 동국인의 자랑이자, 불교계의 자랑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일찌기 민족 동국을 세우며 섭심, 신실, 도세, 자애라는 교육이념에 입각해 인간해방의 불교정도를 세우자는 큰 뜻을 갖고 동국은 세워져 오늘날 까지도 그 면모를 일신하며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용맹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동국의 발전에 한시의 쉽없이 중흥을 거듭하고자 애국의 벗 제25대 총학생회는 지난 가을 부터 '동국 자주 중흥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또한 등록금고지서를 합의 발부하는 성숙된 자세와 동국중흥의 염원을 담아 동국 중흥 한마당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동국 중흥 한마당은 동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님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애국의 벗 제25대 총학생회는 93년도 동국중흥의 과제를 펼치고자 등록금 문제에서 성숙된 자세와 동국 발전의 의지로 합의 발부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교수, 학생, 직원, 학교당국, 재단이 과거의 분열과 파괴, 불신의 관계를 벗어나 동국중흥의 대의앞에 성숙된 자세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동국 중흥 한마당으로 모아지는 것 입니다. 신촌 봉원사 부지 매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불교 병원 건립이라는 불교 중흥의 과제를 민족동국이 책임

지고 전개하는데 있어 신촌 봉원사 부지 매각 서명운동을 펼칠것 입니다. 이미 89년 조계종 중앙 총회에서 분규사찰 신촌 봉원사 부지 매각을 결정했고 그 사용은 불교 병원을 짓는데 사용키로 했습니다. 신촌 봉원사 부지 매각 서명운동은 재단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재원확보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 재단, 불교계가 모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는 동국 중흥 한마당 개최와 함께 전 동국인의 학교발전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재단,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동국을 중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 당국도 1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해 적극적인 지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동창회, 직원 노조, 교수회등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중흥의 한마당 개최에 긍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봉원사 부지 매각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재원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국중흥 한마당으로 전 동국인을 모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애국의 벗 제25대 총학생회가 제안하는 봉원사 부지매각 서명운동과 동국 중흥 한마당에 전 동국인의 뜨거운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3년을 '동국 중흥의 해'로 만드는데 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합니다.

동국의 중흥에 모두 함께 할 것이라 믿으며 전 동국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동국 중흥 원년 4월 13일

동국대학교 애국의벗 제25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순호 합장

◇영화평 '하위즈 엔드'

자유주의적 화해와 인간성 개조
할리웃과 색다른 유럽식 문예영화

전망 좋은 방으로 우리에게 낯이 익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과 제작자 이 스타일 머천트 그리고 극본의 루스 프라우 자발라 3인이 만든 영화 '하위즈 엔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에 들어간다. 이미 미국에서 개봉되어 장기상영에 들어갔고, 아카데미상의 3개 부문(여우주연, 미술, 각색)을 수상해 화제에 오른 작품이다.



영화의 원작자 E.M 포스터는 '전망좋은 방' 등을 썼던 작가로 이미 그 작품이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우리에게 낯익지 않은 인물이다. 이 영화는 원작에 충실하다. 즉 문예영화답게 원작에 충실한 동시에 원작이 갖는 문학적 표현을 영상으로 뛰어난이 버린다.

유 권준 <사범대 지리교육과>

문화 단신

공연 안내

◇칠신산... 과거와 현재의 어우러짐이 독특한 춤과 노래로 정서적 분위기를 지어내는 작품. 분열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작사를 고루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오후 7시 30분. 광명시민회관 대극장. 892-6666.

◇왕이 된 허수아비... 86년 12월 12일 첫 막을 올린 91년 5월 31일까지 675회를 기록한 '왕이 된 허수아비'를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시 공연한다. 5월 10일까지 평일 7시 30분, 금·토·일 4시, 7시. 에당소극장. (매주 화요일은 휴) 701-1978.

◇독곡 음악회... '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는 이름으로 93년 첫 라이브 콘서트를 갖는다. 4월 18일 오후 2시, 5시. 서리별 문화회관.

◇토요 명사 강연회... 한국 문예 진흥원에서는 문예예술 각 분야의 명사를 LD형 최신 영상매체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획해 4.5.6일에 걸쳐 방명한다. 4월 17일 오후 2시, 4월 18일 오후 2시, 5시. 서리별 문화회관.

새로 나온 책

◇메스컴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열린 사회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하려면 어떻게 메스컴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이다. 메스컴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라기 보다는 일반 독자들이 메스컴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도시출판사 5천원>

◇컴퓨터는 강풍이다... 컴퓨터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내용을 예시처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다. <가서원 4천8백원>

시평 - 임기중 교수 편저 '우리의 옛 노래'

고전시가 맥락 폭넓게
집성한 민족 사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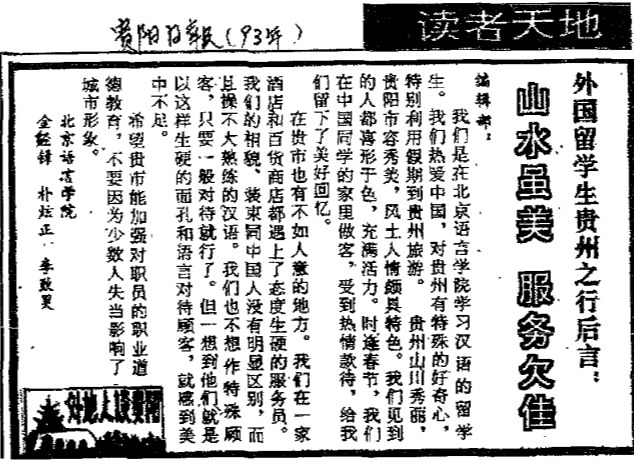
3~14세기까지 노래 총2백여편 망라
고전문학 작품의 현대화 시도 앞당겨

국문학연구사를 돌아보는 학자들의 회고에는 종종 뿌듯한 자족감이 내비친다. 자료 발굴과 정리에서 일반 이론의 수립에 이르는 여러 방면에서 고작 반세기를 웃도는 짧은 학문적 연륜이 믿지 않을 만큼 풍부한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고전문학전집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현실에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믿고 읽을 수 있는 국문학작품의 편찬을 만드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들인 노고에 비해 돌아오는 영예가 적은 일이기도 하다.

◇중국 귀주성 여행보고서

개혁 물결이 활기찬 중국인 모습 인상적



◇김경록군이 귀주성에 대한 느낌을 담아 귀향일보에 투고한 글

지난해 겨울 김경록 (중문4)군이 북경어언학원을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해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북경에서 상해를 거쳐 귀주성까지 13일의 여행을 했다.

김군은 여행하는 동안 느낀점들을 귀향일보 투고란에 '외국인이 본 중국 귀주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곳이었으나 개혁의 물결이 느껴지며 중국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성실성과 신중함 정도는 본 발음만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오래 남는다'며 나태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직업사태는 적극적인 못하고 딱딱해, 대하는 이호 하여금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그 지극한 신중함을 통해 귀주인들의 도덕적 교육 증진 희망과 교수인들의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짧은 여행이었고 일부불만을 지적한 글이지만 귀주인들의 생활의식 향상에 일말의 움직임을 주었으리라 짐작하며 김군의 여행의미를 되새겨 본다.

<백준기 기자>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진솔한 삶이 담겨진 수필·시·프로그 등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260-3491~2, (0561)770-2057

지는 3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노래 2백여편을 망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래에 관련된 기사까지 포함해서 옛날의 신명과 예사가 절절히 담긴 민족의 사화집을 엮었다.

황중연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원>

대학문화연구회 주관
새세대와 함께하는
제1회 순회 문화강좌

대학문화연구회는 오는 15일 '새세대와 함께하는 제1회 순회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순회강좌는 대학생활의 문제의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참모에, 올바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의 내용으로는 △노래-신세대 소비문화와 대중가요, 유행선시(작곡가), 대중가요에 대한 진본적인 검토와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신세대 소비문화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노래문화를 알아 본다.

△스포츠-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경원씨(시인·풍물일꾼): 민족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문의: 336-7896

이웃사랑

▲ 일 마친 선배네 집 이사를 했다. 방마다 새로 도배까지 하더니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근처 지점에서 도배기종자 1명이 나와 방2개 도배를 하루만에 끝내려고 하니 일이 만만치 않았다. 먼저 앞서 살던 사람들이 쓰던 낡은 벽지를 떼어내는데 벽과 떨어져 있는 벽지판을 제거했다. 여차와 낡은 벽지에 붙어야 새 벽지도 잘 붙기 때문에 떼내야 하는 것은 벽에서 일어나 있는 낡은 벽지라고 도배하는 이는 설명했다. 벽과 벽지가 떨어지거나 새 벽지를 붙이던 또 다시 일그러지 마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요즘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발표하고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혁의 이미지에 맞추기위해 사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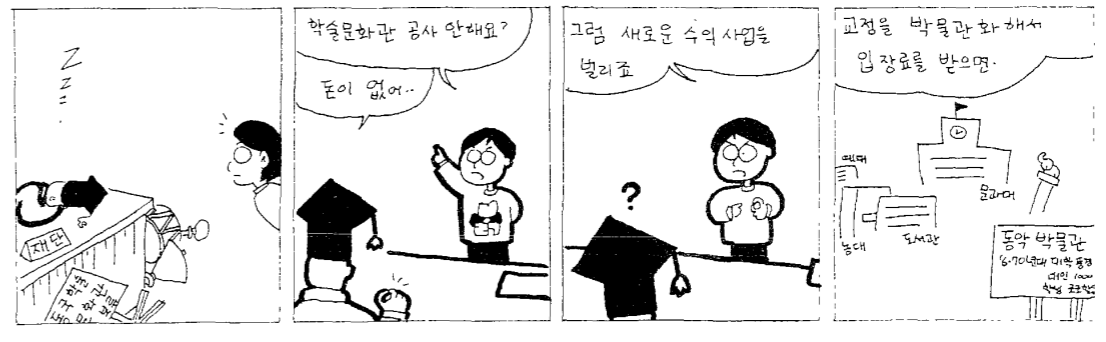
어리숙한 교육개혁

조나고 요우음치던 옛 정권과는 달리 일신된 면모를 엿보게 했다. 또한 지난 90년 사립대학 제단의 자율성 부여를 명목으로 끊임없는 제단의 부정 부패, 비리등을 가능케했던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법의 회생자인 해직교수들의 복직도 검토

토종이라는 소식이 있다. ▲교육개혁의 서막은 이렇듯 김영삼 교육대통령이 불리우는 면모에 어울린다. 그러나 서막의 거창함과는 달리 어리숙한 교육개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다. 교육부장관과 정위원장의 면담과정에서도 짐작컨대 진정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해직교사의 전면복직에는 아직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작은 단서가 달려있다. '전교조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전면 복직은 곤란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을 허상으로 보게 한다. ▲교육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와 같은 조건부 단서는 달려있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의 새벽지는 낡은벽지를 완전히 견어낸 후에 발리아 하는 것이다. <水>



최경인 (18)



동국대학교 개교 87주년 기념 동대신문 창간 43주년 기념 제31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 모집

본 대학교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학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학의 재색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1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본교 입학후 장학금 지급의 혜택이 부여되오니 가장 권위 있고 진정 있는 이 향연에 전국 고교 문학도들이 많이 참가하여 영광을 얻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 2~3편
(나) 소설 1편(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다) 수필 1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응모·심사절차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고교생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예선(원고심사)에서 입선자를 뽑아 개별 통지하고, 5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본교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케 하여 최종 입상자를 결정한다.

시상
(가) 각 종목별 장원 1편, 우수작 2편, 가작 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 입상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로 장원입상자가 본교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을 면제함.
(다) 재학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가) 응모 작품에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 등을 반드시 써 줄 것.
(나) 응모 작품 결본에는 (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제출)이라고 쓸 것.

작품제출기간
1993년 4월 28일~5월 4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귀중

동대신문사